



3면

"정부 업무개시명령마를 수 없다"

전주매일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음 11월 7일) 제31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부 국정과제' 규제혁신 논의

전북도, 국무조정실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제조기업 등
도내 현장 발굴 10건
어로 개선에 머리 맞대



전북도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대한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국무조정실
을 만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장 김희옥 전북도 기업에
로해소지원담당 규제혁신 관계 공무원
일 등 50여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국정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 등 현장에서
발굴한 10건의 규제에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창업보육센
터 입주기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
업허가 △고용인원 달성률에 따른 지
부보조금 환수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농림사업 지원요건 중 농업법인 출
자금 1억원 이상 요건 완화 등 10건의
규제에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
실과 머리를 맞댔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들의 에로가 논의됐다.

주택에서는 온라인 식품유통전문판
매업 영위가 가능한 반면 창업보육센
터는 건축법 용도상 독립된 사무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연구시설 로 되

어 있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
가를 받지 못해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
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의 에로도
논의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직접시
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
요하나 산업단지는 건설업이 입주제
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

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아 제조기업이
산업단지 외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규
제에로를 개선하고자 했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에로해소지원담
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규제에
로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성
장, 일자리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느
끼는 규제에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
선을 위한 규제 현장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기관
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인 및 관
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TF
구성·운영하며 기업 관련 규제개선
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북도, 대응 총력전 나선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이동 제한

시군별 이행평가 통해
개선방안 도출 등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
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
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세
먼지 저감과 함께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부의 '미세
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제1차 계절관
리제를 시작했으며 올해는 4차 계절관
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기간에도 초미
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패
기물 불법소각 등 생활성연소 저감강
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같은 배
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 강화대책
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시행하는 제4차 계절관
리의 주요 저감 시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전북
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5,492대로

운영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차량은 운영제
한 차감에서 제외된다.

또, 시·군별 계절 관리제 이행평가
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
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터미널 차고
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
차 공회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외로 도로 제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
도내 38개 도로(159KM)에 대해 도로
청소차량 활용한 청소 주기별 일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작지 등에 방지
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된 영농부산
물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수거보상금 제도 민간점검원
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상
시감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급속충전시설 70기 설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복지국장은 "미세먼
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
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
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
동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올 3분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896조6000억원

전년대비 -7.06% 손실... 기금 900조 못넘겨
시장 악화 속 대체투자·해외채권 수익률 선방
"투자기회 모색 등 통한 수익률 제고에 힘쓸 것"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
900조원이 깨졌다.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도 3분기까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896조6,000억 원
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도 기준 국민연금기금적립
금 948조7190억원에 비해 -7.06%인
88조원의 손실을 낸 것이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
준)은 국내주식 -25.47%, 해외주식

-9.52%, 국내채권 -7.53%, 해외채권
6.01%, 대체투자 16.24%로 나타났
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공격적인 통화 긴축기조를
보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
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

제가 심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
속됐다

또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예
상치 상승, 유럽 에너지위기 경제감
및 영국발 재정불안 등이 국·내외 증
시 변동성을 키웠다

김태현 이사장은 "글로벌 투자환경
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저성장이라
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연금
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투자기회 모
색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
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도내 전지역에 '한파경보'... 오늘부터 겨울추위 시작

전주 기상지청은 29일 북서쪽에서 남
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30일 아침
기온이 비가 그친 전날보다 15도 이상
폭 떨어져 영하 2도가 될 것으로 예상
했다.

29일 오후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
어지면서 한파 경보가 전북 전지역에
발효됐다.

비림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출렸으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

하고, 외출 시엔 내복, 목도리, 장갑을
착용하거나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등 보온과 건강관리 유의해 달라고 기
상지청은 당부했다.

또한 육의 작업장에서는 가까운 곳
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와 손난로 등 보온용품 확인해야 하
며,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상태를 점검하고 현 옷으로 감
싸는 등 동파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
다. /최아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